

세월의 흔적들 작품이 되어 빛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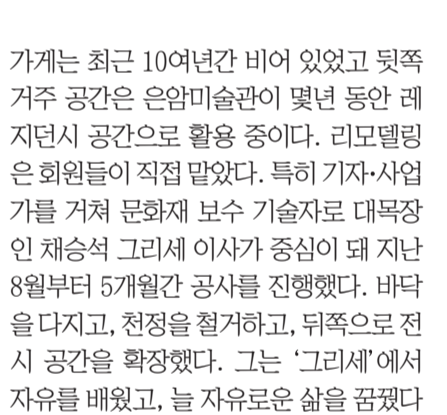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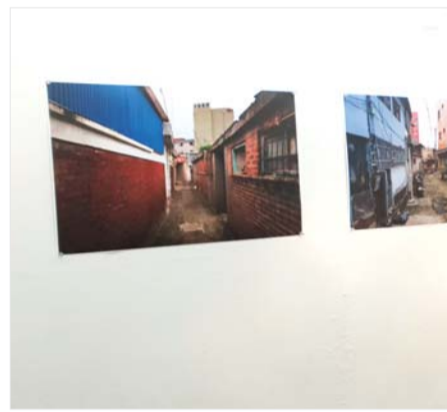
전남대 미술 동아리 '그리세'
'광주계림미술관' 개관
70년된 한옥 리모델링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
프로-아마추어작가 만남의 장
2월 7일까지 '... 계림동' 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자개농방으로 영업을 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전시장 사무실문과 정원으로 통하는 뒷문은 자개로 만들었다. 정문은 중국집 시절 사용하던 문 그대로다. 1947년 상량을 올린 집은 4번의 증개축 과정을 거쳤고 만화가게, 주점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졌다. 내부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낡은 한옥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 울퉁불퉁한 바닥 역시 옛 모습을 남겼다.

지난 18일 옛 계림파출소 뒷편에 문을 연 광주계림미술관(광주시 동구 경양로 273번길)은 최근 계속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삶의 공간들을 기억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공체를 꿈꾼다.

미술관은 전남대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세'(회장 손희하 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운영한다. 1969년 출범한 '그리세'는 지금까지 1000여명의 회원을 배출한 대표적인 대학 문화예술동아리다. 중견 서양화가 최상준 작가를 비롯해 채종기 은암미술관장, 이장한 작가 등이 그리세 출신이다. 미술을 전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미술 실기와 이론을 가르치고 매년 2-3회 전시회를 열었던 40년 전통의 '그리세'는 2000년대 초 사라졌다.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선호하면서 서예, 연극, 클래식 연주반 등이 사라진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세' 회원들은 예술을 즐기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소박하게 미술관을 준비했다. 미술관 자리는 채종기 관장이 중학교 1학년부터 살았던 곳이다. 거리에 인접한



가게는 최근 10여년간 비어 있었고 뒷쪽 거주 공간은 은암미술관이 몇년 동안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리모델링은 회원들이 직접 맡았다. 특히 기자-사업가를 거쳐 문화재 보수 기술자로 대목장인 채종석 그리세 이사가 중심이 돼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바닥을 다지고, 천정을 철거하고, 뒤쪽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했다. 그는 '그리세'에서 자유를 배웠고, 늘 자유로운 삶을 꿈꿔왔다고 말한다.

미술관은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채 이사가 푹푹푹푹 만들어낸



70여년의 세월을 간직한 공간을 리모델링한 광주계림미술관은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있다.



책장 등이 눈길을 끌고 그의 친구가 사할 거주 공간은 은암미술관이 몇년 동안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리모델링은 회원들이 직접 맡았다. 특히 기자-사업가를 거쳐 문화재 보수 기술자로 대목장인 채종석 그리세 이사가 중심이 돼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바닥을 다지고, 천정을 철거하고, 뒤쪽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했다. 그는 '그리세'에서 자유를 배웠고, 늘 자유로운 삶을 꿈꿔왔다고 말한다.

미술관은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채 이사가 푹푹푹푹 만들어낸

책장 등이 눈길을 끌고 그의 친구가 사할 거주 공간은 은암미술관이 몇년 동안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리모델링은 회원들이 직접 맡았다. 특히 기자-사업가를 거쳐 문화재 보수 기술자로 대목장인 채종석 그리세 이사가 중심이 돼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바닥을 다지고, 천정을 철거하고, 뒤쪽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했다. 그는 '그리세'에서 자유를 배웠고, 늘 자유로운 삶을 꿈꿔왔다고 말한다.

미술관은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채 이사가 푹푹푹푹 만들어낸

수건을 이용한 팔러 마술 등을 선보이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에서 공연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은 '베토벤 바이러스', '내 사랑 내 고향', '비발디의 '사계' 등을 연주한다. 또 오페라 '사랑의 묘약'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소프라노 박성경은 '케 세라 세라', '아리랑', '고향의 봄'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힙합, 비보잉, 팝핀 등 다채로운 장르의 춤을 선보이는 광주 대표 비보이 그룹 잭팟크루는 세계 비보이대회 3위에

지만 정원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재개발 지역들은 모든 기억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계림동의 기억을 보존하는 게 필요하죠. 주민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계림미술관은 무엇보다 프로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들의 만남의 장을 꿈꾼다. 문화를 향유하려는 일반인들의 욕구가 커졌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은 이들도 많아졌다. 예향 광주의 저변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실계도 이 지역 역사 재개발이 확정돼 3-4년 후엔 미술관 역시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한 끝없이 이야기비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관전은 국군광주병원 등 5·18 사적지를 활용, 'SOS 풍경' 전 등을 진행한 '목요사진'을 초대했다. 계림동의 삶과 풍경을 앵글에 담은 '내 마음속 계림동' 전에는 김형주·오형석·임수경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2월 7일까지 열린다. 월요일 휴관.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뜨겁지는 않았어도 욕보이지 않고 견뎌온 시간



광주 출신 조성국 시인 '나만 멀쩡해서 미안해' 출간

조대 교지 '민주조선' 창간 멤버

"미안함과 부채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죽음을 두번 봤습니다. 한번은 고등학교 때 5·18을 통해서 큰 죽음을 봤고 다른 한번은 대학 때 친구인 이철규의 죽음을 봤어요. 살아남았지만 아픔과 미안함은 항상 밑바닥에 남아 있어요."



었다. 어쩌면 그는 뜨겁지는 못했어도 욕보이지 않고 지난 시절을 견뎌왔는지 모른다.

시인은 이전까지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등단 17년

광주 출신 조성국 시인이 등단 30년 만에 세 번째 시집 '나만 멀쩡해서 미안해'(시인수첩)를 펴냈다.

"염주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시인의 말처럼 그는 광주 토박이다. 그의 삶과 시를 규정하는 것은 어쩌면 다음의 이력일지 모른다. 1989년 조선대학교 재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이철규 열사와 함께 조선포 교지 '민주조선'을 창간했다. 1990년 '창작과비평'으로 등단하면서 발표한 시의 제목이 '수배일기'였다.

"80년대 후반 조선대 재학시절 문학서를 '석열'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그즈음 조선대는 박철웅 총장에서 첫 민선 총장인 이돈명 총장으로 교체되는 시기였어요. 1·8항쟁을 계기로 학내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학생과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 이고 자주적인 교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어요. 그렇게 해서 조선대 교지인 '민주조선'이 창간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편집위는 첫 호에 북한바로알기 운동, 반미 내용 등을 수록했다. 그로인해 그는 국가보안법 저촉으로 도피생활을 해야 했고, 이철규 열사는 얼마 후 광주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번 시집에는 역사의 한복판을 건너온 청춘의 열정과 좌절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이번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벗어날 수 없는 부채감과 미안함이 드리워져

만에 펴낸 '슬그머니'와 '등근 진동'이 바로 그것. 그는 "시가 생각만큼 잘 써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마음 가는 게 이것 뿐"이어서 시를 쓴다는 것이다.

고재중 시인은 추천의 글에서 "풍경과 인사(人事) 속에서 어떤 절정의 순간을 포획하는" 시적 형상화에 대해 재질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도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풍경과 사람들에 비친 사연들을 능숙한 토속 언어로 형상화했다. 지난 시대의 아픔과 부채감도 있지만, 작품집에는 소외감,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 층위가 다양하다.

시인은 서서히 세월이 밀려나, 그래서 잊혀 가고 묻혀 가는 구석의 풍경들을 살뜰히 들여다본다. "안침진 뒤울안"에 "낭창낭창 휘어지는 '은방울꽃대'"("구석에서 생긴 일")에, "고매(古梅)향 걸터앉은 뒷마루/호듯호듯 끊는 별살"("저녁 목소리")에, "연못가의/ 돼지막 헛간을 개조한 집"("사라진 집터, 베를베를 배롱나무꽃만 돋는다")에 시선을 드리운다.

또한 "폐가에서 주워 온 아랫목구들장을 빈 마당 디딤돌로/갓다 놓"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구석을 애잔한 눈으로 들여다본다.

"앞으로도 시는 계속 쓸 겁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는 가장 맘이 가는 부분이고 저의 존재 이유니까요."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26일 '설맞이 미술관 가족음악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설맞이 미술관 가족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설을 보낸 후 각자 삶의 현장으로 떠나기 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면서 음악과 미술,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나들이로 기획됐다.

광주 '총장 축제' 매직 별문 공연을 기획한 마술사 신동용은 매직쇼, 풍선쇼, 손

수건을 이용한 팔러 마술 등을 선보이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에서 공연한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은 '베토벤 바이러스', '내 사랑 내 고향', '비발디의 '사계' 등을 연주한다. 또 오페라 '사랑의 묘약'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소프라노 박성경은 '케 세라 세라', '아리랑', '고향의 봄'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힙합, 비보잉, 팝핀 등 다채로운 장르의 춤을 선보이는 광주 대표 비보이 그룹 잭팟크루는 세계 비보이대회 3위에

임상한 '춤으로 들어올쇼'를 선보인다. 국악, 성악 등 여러 가지 장르와 합을 맞추는 흥겨운 무대로 관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다.

시립미술관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나는 'Time Cubism' 전, 원로작가 손장섭의 나무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손장섭-역사가 된 풍경'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꿈을 그리는 미술관' 전 등이 열리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